

신석기 시대 농경

신석기인의 먹거리 혁신과 오곡



옥천 대천리 신석기유적 출토 탄화곡물
/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

1 개요 : 신석기 시대 농경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는 초보적인 농경이 행해졌다고 본다. 생업 활동 중 농경은 사전적 의미로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행위이다. 초보적인 농경이란 곡물을 자연 상태에서 채집하는 단계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인간이 작물의 재배를 위한 길들이기(순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농경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신석기 시대 시작부터 농경이 시작되어, 이른 시기의 팽이 농사, 중기에는 보습 농사로 발전되었다는 입장이다. 팽이 농사는 뒤지개나 팽이로 땅을 뒤지고 거기에 씨나 뿌리를 심는 원시적인 농사를 말하며, 유적에서 발견되는 팽이, 뒤지개 같은 도구들과 낱알이나 열매를 가공하는 갈판, 갈돌을 증거로 삼고 있다. 아울러 항구적인 정착 생활과 관련되는 움집과 대형 토기 및 저장 구덩이의 출현도 농경과 관련된다고 본다. 당시의 밭은 화전으로 일군 것으로 추정한다. 중기부터는 새로이 나타난 돌삽과 돌보습을 근거로 보습 농사를 상정하고 땅을 갈아엎고 이랑을 짓는 발전된 농법이 시작되었다고 보며, 늦은 시기에는 보습 농사를 바탕으로 곶배팽이가 호미로 이용되면서 김매기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신석기 시대에는 수렵·채집과 어로로 생업을 영위하였으며, 농경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팽이, 보습, 뒤지개 등은 농경 도구가 아니라 식물 뿌리를 캐거나 땅을 파는 데 이용된 도구로 파악하며, 갈판도 도토리 등의 야생 식료를 가공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절충적 입장으로 신석기 시대 중국 동북 지역의 영향을 받아 조와 기장의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단순히 재배 식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시 사회를 농경사회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대부분의 신석기 시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조, 기장을 비롯한 쌀, 보리, 밀, 콩, 팥 등의 탄화 곡물이 다수 확인되면서, 신석기 시대 생업에 있어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다고 본다.

2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출토 곡물